

목회는 감동입니다.

- 김창근 목사 -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 목회학 박사(D.min), OM선교회 서울 지부 대표, 무학 교회 담임목사

세계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는 자신의 음악 세계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무대에 처음 섰던 어린 시절에는 청중을 휘어잡겠다는 집념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청중과 교감을 하고 싶습니다. 현란한 음악적 기교를 넘어 청중과 감동을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자신의 기술에 스스로 감탄했지만 이제는 음악으로 감동을 주고 싶습니다."

음악은 자신의 감정을 소리를 매개로 하여 듣는 이에게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려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음악인들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풍부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정경화 씨는 이제는 음악과 자신이 하나라고 느끼는데, 음악이 자신의 몸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음악이 자신의 일부라고까지 말합니다.
이런 음악 세계 속에 사는 그의 연주는 감동 그 자체입니다.

이 위대한 연주자의 말은 오늘의 목회자에게 근본적인 도전을 줍니다.
목회자의 최고의 영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되는 것입니다.
'빌머'란 신학자는 목회의 본질은 형식이나 의식이 아닌 영적 대화라고 하였습니다.
즉 목회는 성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음악인의 최고의 경지가 음악과 일체가 되는 것이듯 목회자의 최고 경지는 하나님과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인이 음악을 통해 청중에게 감동을 전하듯 목회자는 목회를 통해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목회자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의 감동으로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와 설교, 목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전해야 합니다.
이런 목회자의 특징은 그의 마음과 삶에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이 가득합니다.

교회에는 성찬 예식에서 나누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될 수 있는 오래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마음 안에 목회자가 있어, 예수님과 목회자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보혈이 목회자의 혈관에 흘러야 합니다.
이런 목회자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삶이 되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그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목회의 핵심은 하나님과 영혼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이 사랑이 주는 감동입니다.

크리소스톰 감독은 목회자가 없는 먼 지방에 한 농부를 가르쳐서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부족한 자를 목회자로 세운 것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그 교회로 가서 기둥 뒤에 숨어 그가 예배 인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 후 감독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농부 출신 목회자는 정성을 다해 빛나는 얼굴로 기도를 드리며, 설교에 온갖 열정과 정성을 쏟아 넣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크리소스톰은 제단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축복을 빌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오히려 감독께서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독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대가 나를 축복해주시오.

나는 당신처럼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자를 본 일이 없습니다.”

이때 목회자는 이상하게 여기며 물었습니다. “

그러면 감독님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있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말이 아니라 감동입니다.

목회자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면 성도들은 감동을 받고 변화됩니다. 그러나 말은 무성해도 예수님의 참된 임재를 경험할 수 없으면 상처받고 실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듯 목회자가 설교한 대로 살고 예수님을 보여 줄 때 성도들은 감동을 받고 교회는 부흥합니다.

이런 감동을 주는 목회자를 성도들은 목말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